

[서평]

로렌스 라이트, 『거대한 타워: 알카에다
그리고 9/11에 이르는 길』*

Lawrence Wright, *The Looming Tower:
Al-Qaeda and the Road to 9/11*

이진화

(서울대)

로렌스 라이트는 9/11 테러를 설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사(前史)를 서사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듯 세밀하게 서술한 장면들로 각종 사건들을 엮어 낸 커다란 밑그림으로서의 『거대한 타워: 알카에다 그리고 9/11에 이르는 길』(이하 『거대한 타워』)은 기본적으로 그 날의 사건을 만들어 낸 여러 조건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로 손색이 없다. 라이트의 기록은 크게 두 축의 서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중동 지역의 급진적인 아랍계 무슬림들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싹틔우고 결국 테러리즘을 주 전략으로 삼아 9/11이라는 공격의 수행에 다다르기까지의 필사적인 과정이 그 한 축이다. 라이트는 9/11 이전의 오십 여년이라는 넓은 기간을 망라하며 전지구적 지하드(global Jihad)의 추진 과정을 살피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세대, 출신 성분, 지역별로 다양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등장한다. 가령, 이십 세기 중반 이집트에서 반서구 정신의 대부로 활약한 사이드 쿠틀(Sayyid Qutb), 팔십

* 본 서평은 서울시 인문학 장학금의 혜택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년대 아프가니스탄이 벌인 대 소련 전쟁에 참여하며 급진적인 무슬림으로 정체화 한 아랍 아프간들(Arab Afghans), 테러리스트 조직망의 구심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 세기의 전환기에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해 온 1세기의 생활을 등지고 테러 조직에 가담한 젊은이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개개인 근본주의자들의 면면 뿐 아니라 그 지향과 목표를 조금씩 달리하는 근본주의 조직들도 그 조직들이 근거한 지역 혹은 국가의 구체적인 정세들을 서술하는 장면을 통해 주의 깊게 언급된다. 세속주의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추구했던 이집트 내의 이슬람주의 운동 조직만 해도, 알지하드(al-Jihad), 이슬람 그룹(the Islamic Group),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 등 세 가지 이상이 지적되며 더불어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Hamas)와 레바논의 헤즈볼라(Hezbollah)까지 다루어진다. 알카에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급진적 무슬림들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확고하게 결집시켜내는 중추로 부상하게 되는 과정은, 그것이 국지적으로 활동하는 여느 이슬람 조직들과는 달리 전지구적인 범위를 포괄한다는 차별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특정한 정부를 타도하고, 국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알카에다의 목표가 아니다. 알카에다는 과학기술과 자유민주주의로 대변되는 근대성과 세속성에 침윤되어 타락해 버린 모든 세계와 맞서 싸워,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이슬람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정한 이슬람의 보편적 재건”¹⁾이야말로 알카에다의 최종 지향점이다. 하기에 알카에다가 그들이 거부하고자 하는 가치와 질서의 대표적 온상인 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태동과 전지구적 테러 조직의 형성 과정을 짚어가는 서사와 함께 『거대한 타워』의 중추를 이루는 또 한 축의 서사는 저자가 미국 내부의 문제로 시선을 돌린 흔적을 보여준다. 라이트는 중앙정보부(CIA)와 연방수사국(FBI)의 방첩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끝내 미국

1) Lawrence Wright, *The Looming Tower: Al-Qaeda and the Road to 9/11* (New York: Vintage, 2006), 144. 이하 본문 인용은 쪽수만 표기한다.

이 거의 무방비나 마찬가지로 상태로 테러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은, 관계자들 간의 소통 부재와 관련 부처 간의 뿌리 깊은 비협조 그리고 이들의 내외부적 알력 다툼으로부터 규명해낸다.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다가올 테러 공격을 미리 막아내는데 필수적인 정보들이 그 정보를 취득한 요원들에게 파편화된 채 존재하며 긴요한 순간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임박해 오는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를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은 전체의 목적이 컸으나 공유된 첩보는 더 이상 첩보가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워 연방수사국에 정보를 건네길 꺼렸던 중앙정보부의 무책임함이나, 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감지한 극소수 요원들이 보인 두려움이나 통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동료들의 불감증이 서사 전반에 걸쳐 통렬하게 묘사된다. 결정적인 정보가 그 정보에 접근해야만 하는 담당자를 스쳐 지나가버림으로써 테러 공격의 현실화 가능성이 그것의 예방 가능성과 반비례해 증가하는 과정에 대한 상술은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불러일으킨다.

공격의 주체들이 탄탄히 그 기반을 다져나가는 동안 방어의 주체들은 위기 의식을 결여한 채 혼선을 거듭했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미국을 표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공격을 준비한 데 비해, 미국은 이미 자신을 과녁으로 하여 날아오는 공격의 포화들을 겪으면서도 더 큰 폭력, 기존의 테러보다 더욱 막대한 무언가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사백 여 쪽에 육박하는 분량에 걸쳐 서술된 9/11 발생의 두 가지 주요 맥락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은 다음의 하위 질문들을 함축한다. (공격한 이들은) 왜 그런 공격을 했을까? (미국은) 왜 그런 공격을 미리 막지 못했을까? 프롤로그의 끄트머리 즈음에는 다니엘 콜먼(Daniel Coleman)이라는 한 연방수사국 요원의 내적 고민이 세 개의 연속된 의문문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직 9/11이 발생하기 전인 구십년대 중후반, 증가하는 테러 위협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던 빈 라덴에 대한 조사를 관련 부처와 다른 요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이어가던 콜먼은 묻는다. “이 운동[전지구적 테러리즘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왜 미국을 공격 대상으로 선택했

을까? 또, 그것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6면) 라이트는 콜먼의 내적 의문을 자유간접화법으로 나타냈다.

콜먼의 의문을 공유하는 독자들이라면 라이트의 텍스트를 통해 달게 목을 축일 수 있겠다. 『저대한 타워』의 매력이자 미덕 중 하나는, 인물들이 보이는 행보와 사건들의 발생 과정을 가급적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회고적인 톤을 띠는 몇 가지 조그만 삽화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사들은 어김없이 시간 순으로 서술되며, 이슬람과 관련된 용어의 뜻풀이는 별도의 주석 없이 본문에 녹아있다. 이는 폭넓은 대중들을 상대로 글을 써 온 라이트가 독자들에게 익숙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택한 저널리즘적 서술 전략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저대한 타워』는 이십세기 후반부의 국제 정세를 지속적으로 뒤쫓던 테러리즘의 절망적인 역사를 파헤치는 진지한 텍스트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술술 읽힌다. 이러한 독서 실감은 대화를 끼워 넣는다거나 인물들의 심리를 묘사하는 것과 같은 소설적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라이트의 서사 전략으로부터도 기인한다. 라이트는 마치 그 자신이 현장을 포착이라도 한 양 인물들 간의 대화를 구축하고 마치 그 자신이 인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거나 한 양 그 혹은 그녀의 심리를 표현해 낸다. 콜먼의 내적 의문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자유간접화법은 그 밖의 인물들의 심리묘사에도 두루 쓰이면서 독자들이 인물의 심정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기여한다. 라이트는 꼼꼼한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테러리스트, 정보 요원, 이들의 지인, 관련 전문가 등을 아울러 육백 명 가까이 인터뷰를 하고 치밀하게 현지조사 하는 과정을 거쳐 『저대한 타워』의 집필에 착수했다고 한다. 인터뷰 상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그 스스로 만들어낸 대화마저 신빙성 있게 다가오고 작가의 손에서 창조된 등장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듯 하는 인물의 심리 서술이 미덥게 느껴지는 것은, 읽는 이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들을 가능한 풍부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라이트의 엄정한 보도 정신이 만들어 낸 효과일 터이다.

취재한 사실을 소설적 양식을 매개로 서사화 하는 논픽션 스타일은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를 압도하며 70년대 미국의 문단과 언론을 풍미한 '뉴 저널리

즘(New Journalism)의 유산이다. 그러나 '뉴 저널리즘'이 보도 내용을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여 소설이라는 지배적 장르와 겨루고자 하는 목표에 경도돼 있었다면, 이십 세기 들어 활발히 활약 중인 '새로운 뉴 저널리즘'(New New Journalism)의 기수들은 보도 대상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그 결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의 실험에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맞춘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사회구조적 배경에 대한 관심을 보도 기록의 동인으로 삼는다는 것도 '뉴 저널리즘'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선배 저널리스트들과 이들의 다른 점이다.²⁾ 『거대한 타워』는 9/11의 배경을 '새로운 뉴 저널리즘'의 전략으로 읽어낸 철두철미한 테러 르포르타주라 할 수 있다.

9/11의 전사를 기록하는 방식, 주모한 테러리스트들의 선택과 행동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서사화의 방식은 9/11 이후 미국을 지배한 테러 담론에 대한 저항으로 유의미하다. 그러한 방식은 미국을 피해자의 위치에 고정시키고 테러의 배경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테러와의 공모로 매도해 버리는 9/11이후의 안보 논리와 애국주의 담론을 벗어나 미국의 위치를 상대화해서 볼 여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³⁾는 9/11에 대한 설명의 틀이 주로 9/11에 벌어진 일, 미국인들에 경험한 그 날의 끔찍한 폭력에 대한 미국의 일인칭 시점 서사로만 조직돼 있다고 지적한다. 9/11 이전을 다루길 지향하는 설명조차 대개 테러리스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 개인들이 특정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된 데 가로놓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봉쇄해 버리는 식이라는 비판 또한 덧붙인다. 그녀가 우려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촉발한 조건과 배경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곧장 등치되곤 하는 태도이다. 이는 9/11 공격의 피해를 절대화 하는 입장에 근거한다. 하지만 그간 미국이 저질러 온 폭력, 즉, 테러리즘을 불러일으킨 요인으로서 미국의 폭력을 보지 않고 미국이 입은 피해만을 절대화시켜버리는 방식으로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게 버

2) "새로운 뉴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는 Robert S. Boynton, *The New New Journalism* (New York: Vintage, 2005) 참조.

3) 버틀러의 테러리즘 논의는 Judith Butler, *Precarious Life* (London: Verso, 2004) 참조.

틀리의 주장이다. 미국의 폭력을 테러라는 명명으로부터 풀어주며 9/11의 전사를 외면하는 일련의 담론들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은 테러라는 명명이 명명의 대상에게 자의적인 방식으로 불공평하게 수여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테러리즘이라는 말의 실천적 해체를 기획하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⁴⁾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 아무리 방어폭력, 대항폭력이더라도 그에 대한 승인이 없을 경우 그것은 테러가 되고, 일단 승인만 되면 그것이 민간인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폭력이건,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이건 간에 쉽게 테러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 승인의 주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1세계이다.

라이트의 르포르타주는 인물 중심 서술 방식을 따르면서도 테러리스트의 동인인 이슬람 근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이 공격의 화살을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맥락을 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9/11의 전사가 필요함을 역설한 버틀러의 요구에 부합한다. 물론 아무리 철저한 취재로 장면을 (재)구성해 냈다고 한들 거기에는 라이트 자신의 관점과 그에 따른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서사 상 나타나는 인물들의 발언이나 심리묘사가 당사자들의 일차적인 목소리를 전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터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 요원들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의 입장에 최대한 밀착하여 그들이 테러라는 전략으로 미국에 맞서게 된 과정을 상술하는 라이트의 태도는, 일인칭 서사의 구사를 통해 미국을 오로지 피해자의 위치로만 고정시키며 테러리즘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테러리즘에 동조하는 행위로 매도하는 애국주의 담론으로부터 그가 일정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 준다.

『거대한 타위』에 등장하는 테러리스트들은 병리적 광신도로 나타나지 않는다. 라이트는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테러리스트들의 개인사적인 아픔, 국가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서구식 가치관에 느끼는 당혹감, 기회와 미래의 박탈로부터 겪는 좌절감, 침공과 점령을 일삼는 강대국들에 대한 저항의식 등

4) 데리다의 테러리즘 논의는 Giovanna Borradori,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Dialogue with Jürgen Habermas and Jacques Derrid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참조.

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각각의 경험에 무게를 실어준다. 그리고 절망과 분노 속에서, 비무슬림들이나 입장을 달리 하는 무슬림들을 ‘타크피르’(takfir)라는 추방의 원칙에 따라 적대시하고 살상하기를 서슴지 않게 되는 이들의 내면을 집요하게 탐구한다. 알카에다의 수장 빈 라덴과 이인자 아 이만 알 자와히리(Ayman al-Zawahiri)의 “미국에 대항하는 전지구적 지하드”(294면)라는 기획은, “물질주의, 세속주의, 성평등”(111면)으로 세상을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의 혼란 상태인 ‘자힐리야’(jahiliyya)로 몰아가는 미국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슬람 율법의 ‘칙령’(fatwa)이다. 근본주의자들은, 진정한 무슬림이라면 죽더라도 천국에 가 행복할 테니 괜찮다는 논리로 무고한 이들과 여자, 어린이에 대한 살상을 정당화 한다. 이슬람의 정도를 거스르는 무슬림들은 배교도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들에 대한 폭력 행사는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로 자신들과는 차별화 된 입장을 견지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공격을 합리화 한다. 나아가 자살 폭탄 테러가 자살을 엄금한 꾸란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슬람 신앙을 위협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차라리 ‘순교’(martyrdom)로 신앙을 지키는 편이 신의 뜻에 진정으로 따르는 길에 가깝다 응수한다. 라이트는 근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비)논리들을 이슬람의 교리에 대한 궤변이라고 보면서도, 근본주의자들이 그 궤변의 논리를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과정의 서술에 집중함으로써 테러리즘을 맥락화 한다. 이러한 설명은 미국을 단순히 피해자의 위치에만 스스로를 고정시키게 두지 않는다.

라이트는 테러리즘을 정당화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태도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 준다. 그는 테러리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협력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축출하는 데 일조하고, 이라크를 침공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메카와 예루살렘에 각각 존재하는 이슬람의 두 성지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무슬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 과정을 가감 없이 살핀다. 테러의 배경을 설명할 때 그것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에 대해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여기서 미국은 더 이상 순수한 피해자의 위치에만 머무르기 어려워진다. 9/11을 저지른 장본인들은 테러리스트들이라 하더라도, 이 테러리스트들을 길러낸 데는 미국의 영향이 핵심적이었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거대한 타워』는 미국이 9/11이 발생시킨 피해를 초래한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더라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기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력으로서 테러리즘의 부상에 웅당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라이트는 테러의 뿌리에 자리한 반미 감정과 그 감정을 자극한 미국의 패권적 중동 정책을 테러리스트들의 지향과 실천이 미국인의 무차별 살상을 통한 미국 괴멸에 있다는 점과 나란히 언급함으로써, 테러리스트들과 미국 그 어느 편에도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라이트의 방식은 버틀러나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⁵⁾이 몹시 비판하는 미국 내 일부 좌파들의 어법과는 다르다. 9/11은 미국이 당할 만한 일이었다는 식의 논리를 구사하는 좌파들의 태도는 보수 우파들이 미국을 전적으로 피해자화 하는 태도의 반편향을 보여주는 셈인데 이는 9/11 테러를 수행한 테러리스트 당사자들을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으로부터 기이하게 면제함으로써 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생겨난 사상자들을 전적으로 애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에 비해 라이트는 9/11 전사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밝혀내는 것을 통해 양편향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난 접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그 물질주의적이고 세속화된 양상과 중동 지역에 대한 폭력적 대응으로 테러리즘을 불러일으킨 측면뿐만 아니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테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물적 토대를 제공한 측면까지 다룸으로써 미국을 가격한 테러의 씨앗은 사실 미국, 미국이 담보하는 가치, 미국의 자원 안에 이미 도사리고 있었다는 통찰을 독자들과 나누고 있다. 무슬림들이 미국의 사회와 문화를 직접 접하면서 더욱 근본주의로 기울어가는 과정에 대한 서술, 알카에다 조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가('맥월드'가 포괄하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바로 연상하게 하는) 애플사의 파워북(Apple Powerbook)이었다는 언급, 테러리스트들이 조종술을 배운 곳이 미국 내의 조종사 양성기관이었다는 지적 등은 모두 위와 같은 라이트의 통찰을 뒷받침해 주는 요소이다. 라이트는 9/11에 이르는 길이 미국이 표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자본주의 질서 대 테러리즘이

5) 지젝의 테러리즘 논의는 Slavoj Žižek,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Five Essays on September 11 and Related Dates* (London: Verso, 2002) 참조.

라는 말끔한 이분법으로 포장돼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의 문화를 혐오하면서 동시에 활용했다는 사실은 알카에다의 훈련병들이 테러 공격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할리우드 스릴러 영화를 즐겨보았다거나, 9/11 공격을 위해 초기에 선발됐던 테러리스트들이 컴퓨터로 가상 비행 체험 게임을 하고 비행기 공중 납치를 다룬 할리우드 영화를 보곤 했다는 대목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사실 9/11의 규모와 위상과 특징은 압도적인 민간인 사망자 수나 재산상의 손실 그 자체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테러 공격의 목표물이 지닌 대표성과 상징성이야말로 사람들의 충격에 자리한 핵심이자 애초에 테러리스트들이 의도한 바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트에 따르면 빈 라덴은 “이미지 관리”(377면)에 능했다. 그는 “메시아적인 응시”(171면)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수단으로부터 쫓겨나 아프가니스탄으로 근거를 옮기는 (일시적) 몰락의 과정을 마치 선지자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퇴거하는 “히지라”(hijira, 263면)처럼 보이게 만들었으며, 선지자가 계시를 받거나 성공적으로 몸을 숨긴 공간인 “동굴”(cave, 264면)이라는 지형을 활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앞으로 도래할 ‘진정한’ 이슬람의 새로운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초토화시킬 테러 공격 또한 최대한도로 극적인 효과를 내길 바랐다. 알카에다가 미대사관과 한대 등을 공격한 데 이어 드디어 모든 역량을 모아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로 했을 때, 빈 라덴은 바로 그러한 극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고 목표물과 공격 방법을 골랐다.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의 이름에 담긴 함의는, 9/11 테러 공격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살상 및 그간 미국이 표상해 온 자유민주주의와 (후기)자본주의 그리고 무소불위의 군사력에 대한 타격임을 명백하게 표상했다. 미국 본토는 더 이상 외부 세력이 가하는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시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빌딩을 통해 증명되고 있었다. 초강대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의 거대한 지형지물이 붕괴하는 모습을 CNN 생중계로 지켜 본 세계 곳곳의 많은 이들은 그 순간 미국의 방어벽이 허물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나 진배없다. 현장을 중계하는 화면들은 할리

우드 재난 영화의 전개와도 같은 시나리오에 의해 만들어진 듯한 영상들을 끊임없이 내보냈는데 그 자체가 이미 테러 공격의 기저에 자리한 미국의 영향을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었다. “전대미문의”, “미증유의”, “전례 없는” 등의 형용어들이 9/11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됐지만 CNN이 내보내는 화면은 대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어딘가 무척 낮이 익었다. 이와 관련해 지젝은 미국이 9/11을 통해 경험하는 경악이란 스스로 환상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를 바로 그 사건을 통해 얻게 되었다는 데서부터 기인한다고 분석하며, 유사한 맥락에서 데리다는 이 사건에 부여된 “전대미문의”, “미증유의”, “전례 없는”, “독특한” 성격을 근본부터 회의한다. 할리우드 없이, 냉전의 논리 속에서 미국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탈레반 없이 9/11을 생각할 수 없다면, 9/11은 차라리 미국 문화와 냉전이 남긴 효과의 극대화된 사태라고 보는 게 더 그럴 듯하다. 9/11의 보도 장면은 그 사건을 마치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으로써, 그 어떤 공격보다도 극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던 빈 라덴의 목표와 사태 이후 유일무이한 피해자로 스스로를 위치시키며 “테러와의 전쟁”이 수반하는 폭력을 정당화하고자 한 미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재현의 공간이 되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라이트가 테러리즘을 ‘문명 간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s)로 보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전지구적 자본주의를 표상하는 미국 패권의 전체적인 역동 속에 존재하는 내부의 타자처럼 여기는 것이 틀림없는 듯하다. 그리고 테러리즘을 “전지구적 십자군”(238면)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보며 그것은 그야말로 ‘문명 간의 충돌’이라는 빈 라덴의 발언을 옮겨 놓는 대목에서도 라이트 자신이 테러리즘을 그러한 종류의 충돌로 본다는 느낌은 없다. 하지만 라이트가 9/11테러의 공중납치범 중 한 명인 모하메드 아타(Mohammed Atta)가 테러리스트가 된 두 가지 계기로 아타의 여성혐오와 애매한 성적체성이라는 섹슈얼리티 문제 그리고 ‘문명 간의 충돌’에 의한 동기부여를 전제할 때 라이트는 그 충돌이 테러리즘의 근간을 이룬다는 시각을 어느 정도는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이 미국인들에게 “너무 기괴하고, 너무 원시적이고 또 낯설[었]다”(7면)고 표현하거나, 연방수

사국 내에 중동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커녕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요원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9/11 이전의 현실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도, 그가 낯선 것(이슬람)과 친숙한 것(미국(이 표상하는 것))이라는 대립 구도를 테러리즘을 관통하는 하나의 요소로 상정하고 있으리라는 심증을 굳게 만든다. 이 심증은 이 르포르타주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도 재고하게 만드는데, 9/11에 이르는 길을 다루는 서사를 이슬람 근본주의와 테러리즘이 대미 공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미국의 정보기관들의 테러 대응 전략 혹은 협력의 부재를 교차 배열하는 구성으로 설정한 것부터가 9/11과 같은 일이 미국에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의 반영일 수 있으리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국 안보의 논리는 미국과 그 타자의 엄격한 분리를 바탕으로 하여 그 타자가 미국에 끼칠 해를 고려할 때만 성립 가능한 논리이기에 낯선 것과 친숙한 것, 타 문명과 미국 문명의 대립을 전제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문명이 실질적으로 그 타자를 자기 내부로부터 길러낸다는 점을 간과하게 할 뿐더러 '충돌'했다고 보이는 문명 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경제적 권력 관계를 가려버림으로써 '충돌'의 배경을 구조적으로 살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미국 중심의 1세계가 맹위를 떨치는 전지구적 권력 배치 속에서 테러리즘이 작동하는 실질적인 방식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이트가 주 독자층을 미국인으로 하여 9/11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리라 미루어 본다면 그가 일군 서사의 두 축은 아마 사건을 대하는 이들이 공히 품었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최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9/11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방법을 다른 각도에서 모색할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대테러 첩보의 허술함이라는 주제는 9/11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여러 갈래의 길 중 '안보'라는 열쇠말을 라이트가 선택한 결과로서 이 서사의 한 축을 이루게 된 것이다. 만일 라이트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테러의 근본적인 저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설파하고 싶었다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나 무슬림들을 대해 온 미국의 자세를 낱낱이 해부하고 성찰하는 서사를 적어 내려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와 첩보라는 민감한 영역을 다루면서, 좀 더 치밀하게 대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일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과 그 사건으로 오래 함께 했던 동료들 잃은 외상에 시달리는 관계자들을 한 명 한 명 취재해 이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그것을 기록에 옮긴 라이트의 노고마저 무화하고 싶지는 않다. 게다가 라이트는 문명 내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포착해 낸 부분에서 또 한 번 그 통찰력의 개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서사의 두 축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로 각각 빈 라덴과 연방수사국 대테러 부서의 열혈 요원인 존 오닐(John O'Neill)을 설정해 두 사람을 호적수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은 미국 내의 기독교 근본주의적 흐름을 제시해 낸다. 요원으로서의 유능하지만 사적으로는 여러모로 방탕하여 빈 라덴이 묘사하는 미국의 전형적인 문제들을 압축해서 지닌 듯 보이는 인물인 오닐은 것처럼 '타락'한 만큼이나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종류의 근본주의적 기독교에 끌린 것으로 제시된다. 르윈스키 스캔들로 대변되는 클린턴 행정부 시대의 문란함이나 비도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임하는 과정에서 보수 기독교가 더욱 그 기세를 더했다는 점도 언급이 된다. 이 때 보수 기독교가 설파하는 가치들이 실질적으로 이슬람 근본주의의 지향과 맞닿아 있더라는 지적은 작금의 폭력적 갈등들이 근본주의와 비근본주의간의 충돌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어떠한 근본주의가 대세를 장악할 것인가 하는 근본주의간의 경합일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 라이트는 테러리즘이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 간의 충돌이라기보다 각 종교의 근본주의들 간의 겨룸일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저자가 서사의 한 축을 통해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가 다른 한 축에 의해 약화되는 듯 하다가 어느새 새로운 통찰로 인해 도로 보완되는 듯한 전체 텍스트 상의 복잡한 효과는 테러리즘과 미국의 관계를 바라보는 라이트의 입장을 반영한다. 9/11의 전사를 떠받치고 있는 정치경제적 조건들을 밝혀내면서도 그러한 물적 조건의 작동을 덮어버리는 수사 혹은 해석으로서의 '문명 간의 충돌'이라는 피상적 인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한 사람의 저자가 보일 수 있는 입장으로서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

나의 독특한 입장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라이트의 입장은 테러리즘을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보수 우파나 9/11을 미국의 자폭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는 좌파의 시각 양편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중도라 하겠다. 『거대한 타워』는 아랍계 미국인인 연방 수사국 요원이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설파하고, 9/11공격으로 사망한 오닐의 장례식에서 낭독되는 그의 편지 내용이 애국심과 미국 안보의 논리를 상기시키도록 하며 매듭지어지면서 아무리 테러리스트들의 입장을 심도 있게 탐구해 낸 라이트도 역시 미국이라는 이상 그 자체만은 여지없이 굳건히 지켜내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의 꼬리를 길게 남긴다.

『거대한 타워』는 이슬람에 대한 입문서로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난해하지 않고 가독성 높은 텍스트이지만, 반세기가 넘는 상당히 넓은 시기를 아우르면서, 중동의 정세와 미국의 패권,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즘 등의 복잡한 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분석적으로 읽고자 마주할 경우 그리 만만하게 다가오는 텍스트는 아니다. 본 서평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도 아주 예민한 이야기거리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빈 라덴이나 아타같은 테러리스트와 오닐같은 미국인 요원을 비판적 거리 없이 곧바로 여성성/남성성의 규범적 이분법에 대응시키는 방식을 가지고 테러리즘과 섹슈얼리티의 관계에 대한 재현 방식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예로, 무슬림 테러리스트를 '나치'로 비유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와 테러리즘을 '전체주의'에 빗대는 라이트의 수사법이 유럽유대인의 절멸을 초래한 이차대전 시기의 유럽 반유대주의와 이십 세기 후반 중동 반유대주의 간에 가로놓인 배경의 차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 이 르포르타주는 애초에 라이트가 9/11이후 『뉴욕커』(*The New Yorker*)지에 실은 기사들에서 출발한 것이다. 『거대한 타워』 출간 이후 그는 후속 취재를 통해 테러리즘의 변모 양상이나 테러리스트들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데,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라이트의 홈페이지(www.lawrencewright.com)나 『뉴욕커』 사이트(www.newyorker.com)를 방문하면 되겠다.